

보 답

도쿄조선제9초급학교 교원
김민화

세계를 잡아먹는 귀신 코로나
벌벌 떠는 만사람들의 마음 모르는가봐
삼시에 소리없이 번져간다

새 일터에서 잘해볼 희망과 포부 안고
사월을 맞이한 이내 마음에
불안과 공포는 나날이 쌓여만 갔다

학교의 벗어나꽃잎은 남몰래 지고
물을 뿌린듯 조용한 교사를 바라보던 날
위험을 무릅쓰고
학교를 찾아오신 한 할머니

기운을 내라고
어려움을 이기라고
정성담아 손수 지으신
마스크 내미시였다

깜깜한 밤에 보는 등잔불처럼
할머니의 마스크는
내 가슴속 환히 비쳐줬다

어느 곳, 어느 학교에서나
뿌듯이 느껴지는
동포들의 끝없는 《후대사랑》

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랴
오직 우리 학교를 위해
동포들의 보배며 미래인
우리 학생들을 위해 바치련다

어느덧 교원생활 칠년째,
량 어깨에 진 책임의 무거움
새삼스레 간직하며
나는 마스크를 끼고
똑바로 앞을 본다